

# 추가 피해차단 '시민안전 최우선'

### 익산시, 금강 지류 산복천 제방붕괴 우려 긴급대피명령 등 강력발동... 시민보호 앞장

익산시가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시민안전 최우선에 전행력을 집중한다.

정현을 시장은 17일 오전 긴급 호우 피해대응회의를 열고 강력한 추가 침수피해 차단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현을 시장은 17일 오전 긴급 호우피해대응회의를 열고 강력한 추가 침수피해 차단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본청과 29개 읍면동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며 임시 대피시설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난 16일 금강지류인 산복천 제방붕괴를 우려해 용안면 10개마을 주민 600여명에게 긴급대피명령을 발효하고 임시거처로 대피시켰다. 이는 대청댐방류량 확대와 금강하굿둑 갑문 개방에 따라 금강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제방 붕괴위험에 대비해 시민보호차원의 선제적 조치였다.

시는 앞서 14일 사전대피권고로 피해가 우려되는 춘포·합다·연산·용포·황등·용안·용동·망성면과 동산·삼성동 등에 대피소를 꾸려 25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에게 긴급차량, 방

역, 도시락, 응급구호세트 등을 신속히 지원했다.

현재 소강상태에 이르는 5개소 대피소는 해제되고 16일 오후 8시 기준 452명이 7개 지역 18개소 대피소에서 가구별 마련된 텐트에서 임시거처하고 있으며 18일까지 운영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연일 300mm인팍의 폭우에 금강, 만경강을 비롯해 도심 인팍의 하천과 농수로 수위상승을 대

비해 전면 통제구간을 확대하고 위기 대응에 나섰다.

14일부터 금강 주변 23개소와 만경강 주변 21개소 하천변 진입로 등 주변 44개 시설과 송천사거리 영등동~오산면 탐천 제방도로 32개소 도로를 통제했다.

16일 오후 9시 기준 현재는 폴리스타인이 설치된 12개소가 부분통제되고 춘포면 세월교와 만경강 언더패스 통제상태다. /익산=이재훈 기자

# 글로벌 보석문화관광도시 '도약'

### 익산시, 보석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전문성을 갖춘 주얼리 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보석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한다.

시는 보석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산업으로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가진 K-주얼리 시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17일 시는 공실운동장 임시청사에서 익산시 보석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대안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보석산업 발전계획 수립 관련 공무원, 학계, 지원기관, 업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보석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구조 고도화를 위해 구축된 산업인프라를 활용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육성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됐다.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의 주얼리시장이 최근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시는 이를 주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익산 보석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나섰다.

실문조사 및 심층면접에 기반한 보석산업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토대로 국·내외 보석산업의 실태와 익산시 보석산업의 경쟁력 및 발전 잠재력 분석, 발전 전략 도출, 세부 육성 정책 및 투자계획 등이 제시됐다.

우선 디자인 역량 강화사업하고 공동브랜드 사업 등을 추진해 보석산업 클러스터 경쟁력을 한층업 업그레이

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산업화 영역을 확대를 위한 주얼리플랫폼 운영 혁신과 청년창업 양성을 위한 아트페어 운영 등 보석과 결합한 문화콘텐츠 개발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보석박물관, 보석산업단지 등 인프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주얼리명인과 1박2일 등과 같은 인적 자원을 포함한 관광자원화 분야도 강조했다.

앞으로 시는 보석산업 클러스터 경쟁력을 강화해 보석산업이 문화·관광 산업과의 융합 방안이 함께 모색됐다. 시는 용역 결과를 향후 관련 사업 추진 및 정부 공모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발굴된 주요 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익산 보석산업 발전 및 지역 향토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얼리 시장 규모는 커지는 추세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가 유로모니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 주얼리 시장 규모는 2021년보다 4.4% 성장한 3682억 달러(약 492조 원)로 추정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올해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500여명 양성 추진

### 군산시, 조선해양기자재 청년 일자리 사업 등 통해 채용 유도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생산 및 기술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 및 기술인력 500여명을 양성한다.

지역 대표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재가동 이후 올해 연간 10만톤 이상 블록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1,000여명의 생산 및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고용보충 가입 기준 고용인원은 800여명으로 앞으로 200여명 가까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신규인력양성과 숙련공 고용 지역정착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부족한 조선업 생산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 등 4개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500여명을 교육·양성할 계획이다. 또, 교육·훈련 대상자들에게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 청년 일자리 사업과 조선산업 신중년 취업지원사

업을 통해 조선산업 근로자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비 지원사업으로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취업 정착금을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100여명에게는 조선업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조선업체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비해 외국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사업 아이디어 공모

군산시 지역 내 고향사랑 기부 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에 기부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하고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생산 담배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상반기는 차질 없는 시행 및 운영 안정화에 집중했다면 하반기는 대시민 제도 홍보 및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돌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적립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보육료 무료 등 육아 지원(훗키이도 가미시호로정), △도자기 후예인정 지원(기후현 타지마시), △산호초 지키기 사업(오카와현 요미타촌), △랜드볼

게이치 지원(모야마현 히마시) 등 지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10만 여개의 폭넓은 기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지역 맞춤 사업이 발굴·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 기부 동참'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1일까지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 시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 국민의 공감을 얻는 효능감 높은 우리지역 특화 기부 사업이 많이 발굴되어 고향사랑 기부로 우리 지역을 응원하는 사람이 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속적 홍보 활동으로 제도를 활성화해 지역 활력을 끌어올리고 지역 발전을 견인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홍보관 운영

군산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군 일대에서 개최예정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홍보관을 운영한다.

32년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잼버리대회에는 170여개국, 4만여명의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우리 시를 세계에 알리고 방문객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잼버리 행사장 내 설치되는 홍보관 속에 '군산시간여행 마을 놀이터'를 주제로 △시 홍보영상 시스템 구축, △시 우수 정책 및 분야별 시정 홍보, △관광명소 12선, 해시태그(#) 이벤트, △체험존과 놀이존 운영 등 군산만의 특색 있는 주요 정

책과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체험존과 놀이존에서는 홍보관과 홍보관 내 숨어있는 관광지 사진을 개인 SNS에 인증하는 이벤트와 공기놀이 알까기, 딱지놀이 등 추억의 시간여행놀이터를 운영해 참여한 방문객에게 군산만의 특색있는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1시민 1악기 하반기 수강생 모집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행복정책 '1시민 1악기'가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시는 탐부터 개인까지 아우르는 분야별 악기 강습으로 전 시민이 어디서든 음악을 취미로 즐길 수 있도록 하반기 수강생을 이달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시민 5인 이상 팀을 구성하는 팀 신청은 △희망장소 22개 팀 (피아노 제외) △원광대 6개 팀 (피아노, 플루트, 첼로, 바이올린)로 모집한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강좌는 △익산문화원에서 진행되는 가야금, 해금 2개 강좌 △삼학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첼로, 플루트 2개 강좌가 있다.

신청방법은 팀별 방법과 개인별 신청방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팀별 신청의 경우 문화관광산업과 방문접수와 우편접수이며, 개인별 신청의 경우 개인 강습장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8월 주민세 사업 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익산시는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2023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직전년도 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기본세율(구 균등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구 재산분)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 단,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과세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만 해당된다.

시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분을 기준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으로 이를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세무과를 통해 지난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